

## 설 교 노 트

성경: 마태복음25:8-13  
제목: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기쁨

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 
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 
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 
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 
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 
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

## 목 회 칼 럼

요며칠 교회에서 Citrus Park까지 5.3 마일을 2 시간 동안 걸어서 퇴근해 보았습니다. 차가 다니는 길보다는 도심 속의 트레일(trail)이 많은 코스를 선택했습니다. 두 발로 땅 흘리며 걸음으로서 제게 주어진 여러 유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

첫째, 걸으면서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. 산보를 즐기며 홀로 주님과 있는 시간,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.

둘째, 여유있게 사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현대인들은 스마트폰, 컴퓨터와 TV등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초록빛 자연과 햇빛을 누리면서는 행복감을 느끼며 사고할 수 있어서, 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.

셋째, 아침에 runner's high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. Runner's high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고 몸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절정입니다. 전날의 운동과 행복감 덕분에,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.

넷째,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체력이 약해지고, 피로감이 많아진 경우, 우리는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냅니다. 하지만, 체력이 좋아지고, 행복감이 충만하면, 우리는 더 참을성 있게 사람들을 미소로 섬길 수 있습니다.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주님을 더 잘 섬기려는 의욕이 샘솟는 그 시간은 참으로 복되고 또 복되었습니다.

에녹처럼,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과 순종의 길을 함께 가길 소망하며 박주영 드림

## 3월 행사일정

3.07 (주일)	3.01(월) 삼일절
3.14 (주일)	Daylight Saving time 시작
3.21 (주일)	3월 정기 당회
3.28 (주일)	종려 주일
	(2/17~4/3 사순절)

## 공 동 체 성 경 읽 기 표

3.21(일)	3.22 (월)	3.23 (화)	3.24 (수)	3.25(목)	3.26 (금)	3.27 (토)
레 13-14	레 15-17	레 18-20	레 21-23	레 24-25	레 26-27	민 1-2

## 예 물 봉 헌 하 신 분 들

십일조 헌금 : \$ 1,496.00  
김정화 박주영 오정희 윤현희 이경노 이경희 이애경 이옥주 장영애  
장종순 정연화 최기환 무명

감사 헌금 : \$ 100.00  
김용래 문현욱 이애경 장영애 전인애

주일 헌금 : \$ 279.00  
김선중 박주영 이선화 이승재 최민호 황기자 현주 Cooper Anne Park  
무명

계절 헌금 : \$	선교 헌금 : \$ 50.00 오정희	건축 헌금 : \$
청소년부 : \$ 32.00	주일학교 : \$	총헌금합계 : \$1,957.00